



능력 있는 축산인의 命 끊을 자는 無



조용환 편집장무
축산신문

오늘 모처럼 장기를 두다가 불현듯 33年前 고등학교 고전편 시간에 배운 고사 ‘兔死拘烹(토사구팽)’ 이 생각났다.

이 고사는 楚霸王(초패왕) 項羽(항우)와 漢高祖(한고조) 劉邦(유방)의 싸움을 BC 190~205년 사이 15년 동안 저술한 거대중국 역사소설 楚漢志(초한지)에 나오는 韓信(한신)의 유명한 말 <狡兔死良拘烹(교토사양구팽), 高鳥盡良弓藏(고조진양궁장), 敵國破謀臣亡(적국파모신망)> 에서 비롯된다.

이 고사를 풀어 보면 ‘교활한 토끼를 사냥하고 나면 좋은 사냥개는 삶겨 먹히고, 하늘 높이 나는 새는 다 잡으면 좋은 활은 공간에 처박히며, 적국을 쳐부수고 나면 지혜 있는 신하는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소 의심이 많고 편협한 인물이었던 유방이 의협심이 강하고 천하장사였던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신이라는 명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한신은 당시 난세의 영웅인 항우의 楚軍(초군)에게 연패하던 유방에게 패권을 차지토록 한 1등 공신이다. 그러나 한신은 三國志(삼국지) 曹操(조조)의 신하 楊修(양수)와 같이 단명한 안타까운 인물이다.

그것도 자신이 목숨을 바쳐 충성한 주인 유방으로부터 제거되는 운명을 겪은 한신의 심정은 兔死拘烹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유사어로는 得魚忘筌(득어망진)이 있다. 고기를 잡고 나서 통발을 잊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고사는 우리 역사에도 조선조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었던 공신 三峰(삼봉) 鄭道傳(정도전)이 권력의 암투 속에서 제거되고 말

모든 정치권이나 축산단체 역시 이해집단이 있기 마련으로 그 역사 속에서 권력의 주변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 안타깝게 명을 다하지 못함을 볼 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處世(처세)가 축산분야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쯤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한다.

있던 일이 있다. 현대사에서 김영삼 前대통령 취임직후 김재순 국회의장이 부정축재 파문 속에 ‘토끼를 다 잡아먹은 사냥꾼은 마지막에는 사냥개까지 잡아 먹는다’는 兎死狗烹이라는 말을 던져 김영삼정권 초야에 一波萬波(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정계를 은퇴한 일이 있다.

이 고사들은 최근 정치권은 물론 축산업계 일각에서도 난무하고 있다. 중앙단체장 선거에서부터 지역단체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이 안타깝게 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능력이 있는 우수한 축산지도자가 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냥이 끝난 후 꿩을 솔로 들어가는 개의 운명처럼 되기까지는 그 곁에 술수가 남다른 家臣(가신)이 속삭이는 말 <鐘離昧(종리매:항우의 장수)의 목을 가지고 배알 하시면 천자도 기뻐하시리라>을 분별 못한 것도 이유일 수 있다. 한신은 자신의 꾀에 의하여 친구인 종리매를 죽게 했고 결국 자신도 죽임을 당했다.

이렇듯 이 고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전국에는 한우·낙

농·양돈·양계·기타 가축에 이르기까지 축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와 법인 성격의 중앙 및 지역단체가 수백에 이른다. 친목 성격의 축산모임도 1천개를 육박할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30년이 넘도록 관련분야는 물론 관련업계 발전을 위해 견인 역할을 했다.

이들 단체가 성장하기까지는 축산농가와 업계인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상호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정치권이나 축산단체 역시 이해집단이 있기 마련으로 그 역사 속에서 권력의 주변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 안타깝게 명을 다하지 못함을 볼 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處世(처세)가 축산분야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쯤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한다.

왜냐하면 한국 축산업 발전을 위해 나아가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능력을 갖춘 우수한 축산인의 명을 꿩을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다.